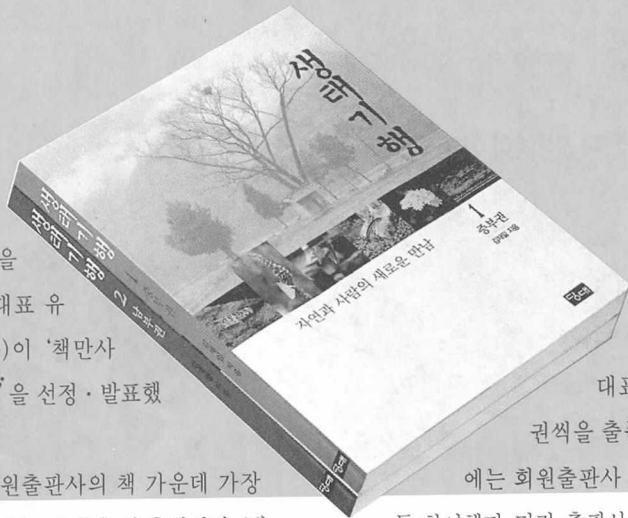


## ‘책만사’ 올해의 책 선정해 첫 수상작으로 당대의 《생태기행》 뽑혀



지난 11월 8일 ‘책을 만드는 사람들’(대표 유환옥, 이하 책만사)이 ‘책만사가 뽑은 올해의 책’을 선정·발표했다.

올해 간행된 회원출판사의 책 가운데 가장 잘 만든 책에 주어지는 이 상은 각 출판사가 ‘대표작’ 한권씩을 출품해 회원사 대표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됐는데, 당대의 《생태기행(전2권)》(김재일)이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책만사’는 12월 8일 별도의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다음은 올해의 책 선정작업을 주도한 ‘책만사’ 기획간사인 장원용 지호 대표와의 일문일답.

— 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출판계가 어려워 출판사들이 의기소침해 있었다. 회원사간에 서로 격려해줄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백의’의 유환옥 대표가 아이디어를 냈다.”

—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했나?

“출판계가 어려워 출판사들이 의기소침해 있었다. 회원사간에 서로 격려해줄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백의’의 유환옥 대표가 아이디어를 냈다.”

“각 회원출판사가 자사를 대표하는 책 한 권씩을 출품했다. 심사에는 회원출판사 대표들이 모

두 참여했다. 먼저, 출판사 대표가 자사가 출품한 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1차 투표에 들어갔다. 1차 투표에서 《생태기행》(당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바다출판사), 《정치경제학 비관 요강(전3권)》(백의) 등 7권이 선정됐다. 2차 투표 결과 《생태기행》과 《정치경제학...》이 남았다. 각 대표의 추가 설명을 듣고 3차 투표에 들어갔다.”

— 한표 차이로 《생태기행》이 선정됐다는데?

“《생태기행》이 9표, 《정치경제학...》이 8표를 얻었다. 아마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생태문제를 당대 특유의 어법으로 풀어내곤 공감대를 얻은 것 같다.”

— 분야별로 뽑지 않고 통틀어 단 한권만 선

정한 점이 특이한데...

“이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하다. 출품된 책들은 각 출판사가 각고의 공을 들인 책들이고, 모두 상을 받을 만한 책들이다. 백의는 《정치경제학...》을 출판하기 위해 마르크스를 전공한 직원을 따로 뽑았다. 지성사의 《열려라 개미나라》는 평범한 글이지만 출판사의 노력으로 아주 좋은 책이 만들어졌다. 실용서 분야를 배려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 점은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다.”

‘책만사’는 출판계의 ‘젊은 피’들이 모인 단체다. 인문서, 실용서, 아동서 등 출판의 전분야를 망라한 30, 40대 젊은 출판인이 모인 이 모임은 최근 노쇠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우리 출판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체 37개 회원사로 구성된 ‘책만사’는 결성 초기부터 지금까지 매달 세미나를 개최, 공부하는 젊은 출판인들의 모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최갑수 기자

### “미래지향적인 주제가 공감 얻은 듯”

‘올해의 책’ 수상한 당대의 박미옥 대표



《생태기행》(김재일)은 당대가 지금까지 만든 책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책이다. 당대가 이 책을 기획한 것은 지난 1998년. 올해 7월 책이 나오기 전까지 아홉 번이나 교정을 봤다. 독자들이 휴대하기 쉬운 판형과 그에 걸맞는 종이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주로 사회과학 서적을 출간하는 당대로서는 지금까지 만들던 책과 성격이 달

라 편집과정에서도 유난히 애를 먹었다. 그런 만큼 수상소식을 접한 박미옥 대표(44, 사진)의 감회는 남달랐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책이 보여준 미래

지향적인 주제가 다른 출판사들의 공감을 얻은 것 같다. 또한 당대가 지금까지 출판한 책들과는 다르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출판사의 출판영역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킨 책이다.”

필자선정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책상에만 앉아 있는 필자가 아니라 실천적이면서도 당대와 시각이 맞는 사람이어야만 했다. 1년 정도 필자를 찾던 중 ‘두레 생태기행’이라는 모임을 만든 김재일씨가 눈에 띄었다. 하지만 김씨는 책을 써달라는 박대표의 제의를 받고 많이 망설였다. 몇안되는 ‘생태의 보고’ 마저 책 때문에 오히려 파괴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그러나 기여하는 면이 더 많다는 박대표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책을 내기로 했다.

“백두산 생태기행 부분이 있지만 신지 않았습시다. 지은이가 중국을 통해 백두산에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생태를 완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대표의 간간한 ‘원칙주의’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책은 전5권으로 기획됐는데, 곧 나올 3권은 수도권의 기불 만한 곳을 소개했고 4권부터는 지역을 좀더 세분화해 출간할 계획이다. — 최갑수 기자